

혼자 살 때 가장 힘든 것은 아플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일이라고 하던데 정말 그렇다. 이틀 전에 창문을 열고 자서 그런지 오늘 아침부터 콧물이 나고 몸이 으슬으슬 떨리기 시작했다. 자다가 눈을 떠 보니 이불은 식은땀으로 폭 젖어 있었다. 도저히 학교에 못 갈 것 같아서 친구에게 카톡으로 오늘 학교에 못 간다고 교수님한테 좀 전해달라고 부탁했다.

죽이라도 끓여 먹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냉장고를 열어 봤더니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. 장을 볼까 했는데 옷을 챙겨 입자니 귀찮고 아무 것도 안 먹자니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. 모르겠다 싶어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잤는데 네 시간 쯤 후에 벨소리가 들렸다. 잠을 깨운 것이 짜증나서 투덜투덜 불평을 하면서 누가 왔는지 보니까 문 밖에는 엄마하고 언니가 서 있었다. 예전 같았으면 연락도 안 하고 왔다고 화를 냈을 텐데 오늘은 어찌나 고마웠는지! 문을 열자 엄마는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오시면서 "꼴이 이게 뭐니!" 하시다가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는 얼른 나를 침대에 눕혀줬다.

엄마가 밥은 먹었냐고 하셔서 아직 못 먹었다고 했다. 엄마와 언니는 얼른 방을 정리하고서 가져오신 반찬과 함께 죽을 끓여 상을 차리셨다. 엄마가 만들어 주는 음식을 먹다 보니 갑자기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았다.



오후 다섯 시 쯤에 엄마와 언니가 집에 돌아가려고 하자 나는 엄마한테 오늘만 같이 자 달라고 했다. 엄마는 알았다면서 언니만 먼저 집으로 보냈다. 나는 침대에 누웠고 엄마는 내 곁에 앉아서 과일을 깎아 주셨다. 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참 행복했다.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집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다.

빈칸이 완수



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세요.

- 너무 _____ 공연을 제대로 못한 게 속상해요.
 ① 불평해서 ② 떨려서 ③ 짜증나서 ④ 귀찮아서
- 물에 _____ 담갔다가 꺼내세요.
 ① 폭 ② 왈칵 ③ 투덜투덜 ④ 으슬으슬
- 내일은 학교에 일찍 가야 하니까 6시에 _____ 주세요.
 ① 눕혀 ② 깨워 ③ 끓여 ④ 차려

내용 이해

알맞은 답을 고르세요.

- 이 사람의 증세는 어떻습니까?
 - ① 입맛이 없다.
 - ② 식은땀이 난다.
 - ③ 머리가 아프다.
 - ④ 잠을 잘 못 잔다.
- 이 사람은 오늘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?
 - ① 학교에 안 가서 좋다.
 - ② 엄마는 요리를 못한다.
 - ③ 혼자 사는 건 참 힘들다.
 - ④ 언니가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.
- 이 사람은 너무 아파서 _____.
 - ① 병원에 갔다
 - ② 엄마한테 와 달라고 했다
 - ③ 시장에서 과일을 사 왔다
 - ④ 학교에 안 가고 집에서 잤다
- 이 사람은 왜 눈물이 날 것 같았을까요?
 - ① 배가 너무 고파서
 - ② 감기가 너무 심해서
 - ③ 엄마가 화를 내서
 - ④ 집과 가족이 그리워서

요약

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세요.

꽃물

장을 보다

죽

흘리다

나는 오늘 너무 아팠다. _____도 낮고 몸도 떨렸다. 식은땀도 _____었다/았다/였
다. 그래서 오늘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쉬기로 했다. 뭘 좀 먹고 싶었지만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
어서 그냥 잠을 잤다. 얼마 후에 엄마와 언니가 찾아왔다. 엄마는 내가 아픈 것을 알고 _____
어서/아서/여서 상을 차려 주셨다. 엄마가 끓인 _____을/를 먹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다.
나는 엄마한테 오늘만 집에 가지 말고 같이 자자고 했다.

답

단어 연습

1.㉔ 2.㉑ 3.㉔

내용 이해

1.㉔ 2.㉓ 3.㉔ 4.㉔

요약

콧물, 흘렸다, 장을 봐서, 죽